

이 보도자료는 12. 12.(목) 14: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이 자료를 통하여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춘천지방검찰청

전문공보담당자 부장검사 임중필
전화 033-240-4332 팩스 033-240-4502

보도자료
2019. 12. 12.(목)

제 목

“검찰이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 춘천지검의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 구현을 위한 노력 2 -

-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진)은 검찰권 행사에 **지역민의 건강한 상식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형사처벌을 넘어 **종국적 분쟁해결, 사건 당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검찰시민위원회와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시민의 의견과 지혜를 사건 처분에 직접 반영함은 물론,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협력하여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에게도 생계 지원**을 하고 법사랑위원연합회와 함께 **소년범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따뜻한 검찰’로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 중임
-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민원인의 관점에서 **청내 장애인 시설을 일제 정비·확충**하는 등 법령상 의무에만 따르는 타율적·수동적 기관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자율적·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춘천지검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시민의 요구가 없는 분야에서도 **‘먼저 다가가는 검찰’**로서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사회에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건전한 의견을 기대함

I

“검찰은 형사 처벌만 하는 곳인가요?”

- 검찰은 단순히 형사 처분만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지자체 등과 더불어 피해자는 물론 범죄인 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

II

“지역사회에 먼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검찰

- (범죄피해자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검찰은 직접 또는 (사)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의료비, 생계비, 주거 등을 지원하고,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있음
⇒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하루빨리 회복되어 범죄 피해 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란? 범죄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 직후부터 피해 치유시까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통합업무를 하는 기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 34조)

- (피해자 지원제도 활성화) 춘천지검은 피해자 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은 물론, 피해자 국선변호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피해자들이 수사 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2019년 피해자지원 내역: 춘천지검 및 (사)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류	지원내역
범죄피해구조금 (유족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장해구조금)	피해자 11명, 183,224,230원
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피해자 38명, 39,090,208원
생계비	피해자 25명, 40,449,830원
학자금	피해자 5명, 5,136,900원
주거지원	피해자 5명
기타	피해자 2명, 4,033,000원
합계	피해자 62명(중복인원 제외), 271,934,168원

<2019년 주요 지원사례>

- ▶강도를 당해 증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
- ▶방화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화상 등의 치료를 위한 중상해구조금 등을 지원
- ▶(사)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인제군에서 래프팅 체험을 하며 치유의 시간을 가짐(2019. 8.)

■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따뜻한 검찰

- (구속 피의자 긴급복지지원제도)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소득자인 피의자가 구속되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검찰에서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여 가족의 생계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지자체에 알려 '선지원·사후심사'에 따라 신속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하되 형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는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속 피의자의 모친 등 가족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한 사례) 춘천지검은
 - (1) 폭력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어머니가 평소 아들에게 생계를 의존해 생활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피의자 어머니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잘 챙겨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왔으며
 - (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혼자 남겨지자 별거 중인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 함께 생활하게 하고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음

■ 청소년의 미래를 중시하는 검찰

- (법사랑위원연합회) 검찰은 법사랑위원연합회와 협력하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다시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복귀하도록 돕고 있음

▶법사랑위원연합회란?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청소년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원봉사위원으로 구성된 조직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 (청소년-법사랑위원 1대1 결연, 힐링음악회) 춘천지검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교육 이후에도 법사랑위원들과 청소년들을 1대1로 매칭함은 물론, 홍천군 등과 협력해 수험생을 위한 '힐링음악회'를 여는 등 청소년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결연 청소년 중 갓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다수 있어 법사랑위원과 진로·진학 상담을 하며 미래의 꿈을 함께 그려나갈 것으로 기대됨

▣ 모두에게 열린 검찰을 위한 능동적 노력

- (장애인을 위한 청사 개선) 장애인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 기준과 관계 없이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청사시설을 점검해 ‘도우미 벨’, ‘휠체어 경사로’ 등의 시설을 신설하고 개선하였음
- (구내식당 카페 오픈) 구내식당에 카페를 만들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인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뜻하게 개선함
- (다문화가정 스마트법률학교, 북한이탈주민 법률학교) 춘천지방법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협력하여 도내 다문화가정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에게 생활법률교육,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통하고 있고, 그 외 검사와의 대화 등 각급 학교 학생들의 법률문화 체험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III

“앞으로도 더욱 더 변화하겠습니다”

- 춘천지검은 앞으로도 (사)범죄피해지원센터, 법사랑위원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힘을 모아 ‘먼저 다가가는 검찰’로서, 시민의 요구가 없는 부분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시행하도록 노력할 계획
- 검찰이 보다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전한 의견을 언제든지 춘천지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